

李白〈贈〉詩 譯解(1)

(제1수에서 제5수까지)

趙成千*, 趙得昌**

<목 차>

1. 서론
2. 본론
 - 2.1. 제1수 맹호연에게 드림(陽漢에서)
 - 2.2. 제2수 襄陽의 縣尉인 李皓 중형에게 드림
 - 2.3. 제3수 장공주에 있는 혁차사에게 드림
 - 2.4. 제4수 회해에서 눈을 대하고 부에게 드림
 - 2.5. 제5수 안의현 서현령께 드림
3. 결론

1. 서론

李白的 가장 이른 시문집은 唐代 李陽冰이 편찬한 《草堂集》 10권이었는데 산일되었다. 현재 통행본은 ‘宋蜀本’으로 北宋 宋敏求(1019~1079)가 증각한 《李太白文集》 30권이다. 송축본 《이태백문집》은 ‘古風’ 59수, 樂府詩를 실은 후 그 다음부터는 내용별로 歌吟, 贈詩, 寄詩, 別詩, 酬答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元代 蕭士贊의 《分類補注李太白詩》, 清代 王琦의 《李太白詩集注》 등의 주요 판본도 이러한 형식을 취하였다. 송축본 《이태백문집》 제8권에는 ‘贈詩’를 설정하여 123수를 싣고 있다. ‘贈詩’란 자신이 느낀 바, 표현할 바, 생

* 을지대 조교수

** 협성대 부교수, 교신저자 chode38@lycos.co.kr

각한 바가 있을 때 그것을 시로 써서 친구 및 지인에게 보내어 자신의 감정과 뜻을 기탁하는 것이다. 때문에 시의 제목에 ‘贈’字가 들어 간 경우가 많다. 이백의 ‘贈詩’에서는 그가 시를 통해서 표현한 情志나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 교제한 친구나 지인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는 이백의 ‘贈詩’를 완역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으로 제1수부터 제5수까지 총5수를 역해한다. 그 형식은 原文을 제시하고 逐字翻譯하고 註釋을 달았으며 이어 校記, 詳釋, 解說을 붙였다. 원문의 底本은 ‘宋蜀本’을 위주로 하였으며, 번역은 자구의 직역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미의 순통을 위해서 의역을 보조적으로 하였다. 註釋은 자구의 설명은 물론 그 근거와 전고, 용례까지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학술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校勘은 詹鍈 主編의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운 교감이 있을 경우 추가하였다. 詳釋은 독자번역을 더욱 상세하게 보충하면서 행간의 함의를 부연 설명하였다. 解說은 시에 대한 해제, 연대, 역대 의견 등을 덧붙여 전체 시를 해설하여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 본론

2.1. 제1수 맹호연에게 드림(陽漢에서) (贈孟浩然 陽漢¹⁾)

吾愛孟夫子,²⁾

나 맹호연을 좋아하니

-
- 1) 陽漢: 襄陽의 漢江을 말한다. 襄陽 경내에는 크고 작은 하류가 대략 817개 있는데, 長江, 淮河 두 물줄기로 예측된다. 漢江은 장강 물줄기에 예측되며 襄陽의 가장 중요한 하류이다. 그 길이는 216km, 유역면적은 17357.6 평방km이며 襄陽市 총면적의 88%를 차지한다. 30여 개의 지류가 한강으로 흘러든다.
 - 2) 孟夫子: 孟浩然을 말한다. 夫子는 고대에 남자에 대한 존칭이다. 맹호연은 당나라 시인으로 襄州襄陽(지금의 湖北省 襄陽市) 사람이다. 젊은 시절에 鹿門山에서 은거하다가 40세에 長安을 유람하였으며 41세에 진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낙제하였다. 동으로 吳越지역을 유람하였다. 나중에 荊州 張九齡의 막부에서 종사하였다. 노년에 이르러 등에 종창이

風流天下聞.³⁾ 천하에 풍류 알려져 있네.
 紅顏棄軒冕,⁴⁾ 홍안에 벼슬 길 버리고
 白首臥松雲.⁵⁾ 백수 되어도 소나무와 구름을 벗하였네.
 醉月頻中聖,⁶⁾ 달 마주하고 술에 자주 취하고

나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시는 대부분 은일생활을 반영한 것이 많고 산수전원시로써 세상에 이름이 났는데 풍격이 清淡하였다. 王維와 더불어 이름을 함께 하여 세칭 '王孟'이라 한다. 《新唐書》·《舊唐書》에 그의 傳이 있다.

- 3) 風流: 멋들어지고 탈속적이며 대범한 풍모를 말한다. 王士源의 《孟浩然集序》에서 맹호연에 대하여 "골상이 맑고 풍채가 시원스럽고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제하고 분규를 해결하여 의로운 표상을 세우고, 채소를 기르고 대나무를 길러서 고상함을 보존하였다(骨貌淑清, 風神散朗, 救患解紛, 以立義表. 灌蔬藝竹, 以全高尚.)"라고 하였다.
- 4) 紅顏棄軒冕: ○ 紅顏: 붉고 윤기 나는 얼굴, 청장년 시절을 말한다. ○ 軒冕: 軺軒과 冠冕을 말한다. 軺軒은 공경대부가 타는 수레이고, 冠冕은 관모인데, 이로써 벼슬을 말한다. 이 구는 맹호연이 젊은 시절에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것을 말한다. 맹호연이 벼슬을 포기한 것이 후 현종과 관련된 이유일 수도 있다. 《新唐書·孟浩然傳》에 "맹호연이 나이가 40이 되어 경사를 유람하였다. 일찍이 태학에서 시를 지었는데, 좌중 모든 사람들이 탄복하며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장구령과 왕유가 그를 칭송하였다. 왕유가 개인적으로 그를 내서(역주: 內署, 왕유의 공무실)로 불러들였는데, 조금 있다가 현종이 이르렀다. 맹호연이 책상 아래로 숨고 왕유가 사실대로 주대하자, 현종이 기뻐하며 '짐이 그대 소문을 들어보았지만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어찌 두려워 숨는가?' 라고 하며 맹호연을 불러서 나오게 했다. 황제가 그 시를 물으니, 맹호연이 재배하여 지은 것을 읊조리는데, '재주가 없어 명찰하진 군주가 버렸네.'의 구에 이르자, 황제가 '경이 벼슬을 구하지도 않고, 짐은 경을 버리지도 않았는데, 어찌 나를 무고하는가?' 이렇게 하고는 맹호연을 돌아가게 하였다(年四十, 乃游京師. 嘗於太學賦詩, 一座嗟伏, 無敢抗. 張九齡、王維雅稱道之. 維私邀入內署, 俄而玄宗至, 浩然匿床下, 維以實對, 帝喜曰: '朕聞其人而未見也, 何懼而匿?' 詔浩然出. 帝問其詩, 浩然再拜, 自誦所爲, 至'不才明主棄'之句, 帝曰: '卿不求仕, 而朕未嘗棄卿, 奈何誣我?' 因放還.)"라고 하였다.
- 5) 白首: 흰 머리, 맹호연의 만년시절을 의미한다. ○ 臥松雲: '臥'는 은거의 의미, '松雲'은 산림의 의미로 이 말은 산림에 은거함을 말한다.
- 6) 醉月: 달을 마주하여 술을 마신다. ○ 中聖: 술에 취함. 혹 술에 취한 사람. '中聖人'의 약칭. 魏나라 때 徐邈이 술 마시기를 좋아하였는데, 淸酒를 '聖人', 濁酒를 '賢人'이라 하였다. '中'은 거성으로 동사로 쓰이며 '中毒'의 '中'이다. 청주를 마시고 취하였기 때문에 '中聖'이라 한다. 《三國志·魏書·徐邈傳》에 "魏나라가 막 세웠을 때 徐邈이 尙書郎이 되었다. 당시에는 법으로 음주를 금했으나 서막이 몰래 음주하다가 만취하자, 校事官직의 趙達이 부서 직무를 묻자, 서막이 '聖人'에 중독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조달이 태조에게 알리니 태조가 진노하였다. 변경주둔군 대장인 鮮于輔가 진언하여, '평소에 술에 취한 사람 중에 청주를 마신 자를 성인이라 하고, 탁주를 마신 자를 현인이라 합니다. 서막은 성품이 신중한데 이번에는 우연히 취해서 이 같이 말한 것입니다.' 이로써 결국에는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魏國初建, 爲尙書郎. 時科禁酒, 而邈私飲至於沈醉. 校事趙達問以曹事, 邈曰: '中聖人' 達白之太祖. 太祖甚怒. 度遼將軍鮮于輔進曰: '平日醉客謂酒淸者爲聖人, 濁者爲賢人, 邈性脩慎, 偶醉言耳.' 竟坐得免刑.)"라는 전고가 있다.

迷花不事君.⁷⁾

高山安可仰,

從此揖清芬.⁸⁾

꽃에 도취하여 황제일랑 만들지 않았네.

높은 산을 어떻게 우러를 수 있을까?

이곳에서 그의 고결함에 경의를 표하네.

<校記>

제목 아래에 咸本⁹⁾ · 蕭本¹⁰⁾ · 郭本¹¹⁾에는 모두 ‘襄陽’ 두 자로 주가 되어 있다.

제8구 ‘從此’의 ‘從’자가 咸本 · 蕭本 · 元刊二十六卷本¹²⁾ · 郭本 · 朱本¹³⁾ · 嚴評本¹⁴⁾ · 全唐詩本¹⁵⁾ · 王本¹⁶⁾에는 모두 ‘徒’자로 되어 있다.

제8구 ‘揖清芬’의 ‘揖’이 朱本에는 ‘挹’으로 되어 있다.

<詳釋>

나는 맹호연을 좋아하는데, 그의 고상한 인격과 탈속의 풍류는 천하에 명성을 떨쳤다. 젊은 시절에 벼슬살이를 하찮게 여겨 軺軒과 冠冕을 버리더니, 노년에 흰 머리될 때까지 산림에 은거하며 소나무와 구름을 벗 삼아 세속의 티끌을 버렸다. 달을 마주하고 언제나 술에 취하였고, 꽃에 마음을 두고서 황제 섬기는 일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높은 산 같은 그를 어떻게 우러러 볼 수 있을까? 이곳에서 그의 고결한 덕행에 경의를 표하네.

7) 迷花: 화초에 빠지다. 자연에 도취하다. ○ 事君: 황제를 받들다.

8) 高山安可仰, 從此揖清芬: ○ 高山: 높은 산. 맹호연의 품격이 고상하여 우러르게 함을 말함. 《詩經·小雅·車鄰》의 “높은 산을 우러르고, 큰 길을 따르네(高山仰止, 景行行止)”에 그 용례가 있다. ○ 從此: 이곳에서. 그러나 대부분의 판본은 ‘徒此’로 되어 있다. 이럴 경우 ‘단지 이렇게’로 해석할 수 있다. ○ 清芬: 맑고 향기로운, 고결한 덕행을 비유한다. 陸機 《文賦》의 “조상들의 뛰어난 공덕 읊조리고, 선인들의 맑고 향기로운 음송하네(咏世德之駿烈, 誦先人之清芬.)”에 그 용례가 있다.

9) 明鮑松이 編한 正德八年(서기 1513년) 自刻本 《李杜全集》83권 중의 《李翰林集》30卷.

10) 元刻本 《分類補注李太白詩》25卷.

11) 《四部叢刊》을 영인한 郭雲鵬의 《分類補注李太白詩》30卷.

12) 元刻 《唐翰林李太白集》26卷.

13) 隆慶六年(서기 1572년)에 간행된 朱謙의 《李詩選注》13卷 및 《李詩辨疑》2卷.

14) 明崇禎3年(서기 1630년)에 嚴滄浪과 劉會孟이 評點한 《李杜全集》 중 《李太白集》22권.

15) 上海古籍出版社가 영인한 揚州詩局的 刻本 《全唐詩》와 中華書局的 點校本 《全唐詩》.

16) 乾隆間(서기 1736년-1796년)에 출판된 王琦가 주석을 한 《李太白文集》36卷 및 1977년 中華書局的 點校本 《李太白全集》.

<解説>

이백과 맹호연은 서로 왕래하며 술 마시고 화창하며 노닐었다. 두 사람의 교유는 인생의 유사한 경력이 크게 작용한다. 史籍에 의하면, 맹호연은 일찍이 鹿門山에 은거하다가 40여 세가 되어서 長安에 와서 관직을 구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산림으로 되돌아갔다. 이백 역시 젊었을 때 岷山, 徂徠山에서 은거하다가 장안에 이르러 玄宗에게 供奉翰林의 관직을 받았지만 시기를 받아 황궁을 떠나 다시 유랑의 길을 떠났다. 두 사람의 이러한 경력은 서로를 동반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 시는 두 사람의 이러한 우정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이 시는 開元 27년(서기739년), 이백이 襄陽을 지나면서 맹호연을 다시 만났을 때 지은 것이다.¹⁷⁾ 이 시기에 맹호연은 이미 만년에 이르렀고, 다음해(740년) 등에 종창이 나서 세상을 떠났다.

이 시는 전체 8구로 구성되어 있다. 제1, 2구는 맹호연에 대한 흠모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 작품의 주지를 드러내며 전체 시를 총괄한다. ‘愛’자는 ‘詩眼’으로 전편을 관통하는 서정의 단서이다. ‘孟夫子’ 또한 ‘(敬)愛’의 감정을 담고 있다. 맹호연은 이백보다 12세가 많고 연로하였으며 흥금은 광대하고 천성은 자유분방하고 詩才는 특출하였다. 때문에 ‘夫子’는 그에 대한 양모와 존경의 뜻을 표현하였다. ‘風流’ 두 글자는 맹호연의 품격을 총괄하고, 전편은 이를 둘러싸고 필목을 전개시켰다. 중간 of 합련과 경련은 마치 한 폭의 隱逸圖와 같은데, 산림에 은거하고 풍류자득한 시인의 형상을 간결한 필치로 묘사하였다. ‘紅顏’과 ‘白首’를 對舉하여 맹호연의 청년에서 만년까지의 인생여정을 개괄하였다. 때문에 嚴羽는 ‘紅顏’ 두 구 “10자는 그의 일생을 극진하게 묘사한 것(十字盡一生)”이라고 하였다. 부귀공명과 호화로운 車馬와 冠冕을 버리고 산림의 술바람과 흰 구름을 선택한 것을 묘사하여 ‘버리고 취한 것’으로써 그의 고결함을 돌출시켰다. 제3, 4구가 종적으로 맹호연의 생애를 묘사했다면, 제5, 6구

17) 혹자는 이백이 여러 지역을 유람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襄陽에 가서 맹호연을 만나고자 하였지만, 그가 마침 외유를 떠났기에 만나지 못한 아쉬움과 경모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 하였다.

는 횡적으로 그의 은거생활을 묘사한 것이다. 그는 어떤 때는 밝은 달이 하늘에 떠 있는 밤에 술을 가지고 술바람을 맞이하며 종종 취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때는 산수자연의 꽃에 넋을 잃고 취하기도 하였다. 시인은 제3,4구와 제5,6구에서 맹호연의 형상묘사 가운데 자신의 경애의 감정을 함축시켰으며 제7,8구에 이르러서는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감정의 승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謝榛은 《四溟詩話》에서 ‘紅顏句와 ‘迷花’구는 “두 연이 뜻이 자못 서로 비슷하여(兩聯意頗相似)” “檢束에서 벗어났다(失於檢點)”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두 가지 다른 각도에서 묘사한 것이다. 제3, 4구의 ‘棄軒冕’에서 ‘臥松雲’은 ‘反’으로부터 ‘正’에 이르는 묘사법이고, 제5, 6구의 ‘醉月’, ‘迷花’에서 ‘不事君’은 ‘正’으로부터 ‘反’에 이르는 묘사법이다. 사실 제3,4구와 제5,6구는 縱橫正反의 묘사법이 다채롭게 운용되어 맹호연에 대한 고결한 형상을 극진하게 표현하고 경모의 감정을 더욱 깊게 드러낸 효과를 가져왔다. 나아가 제7,8구에서 “높은 산을 어떻게 우러를 수 있을까?”라는 구절은 ‘敬慕’의 감정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高山’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우러를 수 있을까’라는 탄식을 가져왔다. 이로써 단지 이곳에서 고결한 품격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묘사는 맹호연에 대한 경모의 감정을 한층 더 배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사실 시인의 맹호연에 대한 경모의 감정이 배가될수록 시인은 또한 고결한 삶에 대해 간절히 염원하고 동경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작품에서 평이한 언어를 운용하면서도 ‘中聖’, ‘高山’ 등 형상묘사에 적합하고 자연스러운 전고를 운용하고 대우의 묘미를 살리면서 抒情-描寫-抒情의 방식으로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여 意境을 구성하였다.

2.2. 제2수 襄陽의 縣尉인 李皓 중형에게 드림(어떤 판본에는 晤로 됨)

(贈從兄襄陽少府皓¹⁸⁾)[一作晤]

18) 從兄襄陽少府皓: 郁賢皓는 이백의 <贈臨洛縣令皓弟>라는 시에서는 ‘皓’를 ‘弟’라고 하고,

結髮未識事, ¹⁹⁾	젊은 시절 아직 세상일 모를 때
所交盡英雄.	사귄 벗들 모두 영웅호걸이었네.
卻秦不受賞,	秦을 물리치고 보상 받지 않았으니
擊晉(一作救趙)寧爲功. ²⁰⁾	晉을 격퇴하고 어찌 공으로 삼을 수 있었을 까? ²¹⁾
託身白刃裏,	자신을 흰 칼날 속에 맡기고
殺人紅塵中.	붉은 먼지 속에서 사람 베었네.
當朝揖高義, ²²⁾	당대에서는 높은 의리에 절하였고

이 시에서는 ‘兄’이라 불렀기 때문에 동일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新譯李白詩全集(上)》, 418쪽) ○ 少府는 唐代的 縣尉에 대한 敬稱이다. 唐代에 縣令을 明府, 縣丞을 贊府, 縣尉를 少府라고 하였다.

- 19) 結髮: 머리를 묶다. ‘束髮’과 같은 뜻이다. 옛날에 남자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 머리를 묶었는데 이를 계(髻, 상투)라고 한다. ‘結髮’은 젊었을 때를 가리킨다. 《漢書·李廣傳》의 “신은 젊었을 때 흉노와 전쟁을 했습니다(臣結髮而與匈奴戰).”에 그 용례가 있다.
- 20) 卻秦不受賞, 擊晉(一作救趙)寧爲功: 戰國時代 魯仲連은 다른 사람을 위해 어려움을 없애주고 곤란을 해결하기를 좋아하였다. 秦나라가 趙나라 수도 邯鄲을 포위하자, 조나라가 魏나라에 구원을 청하였지만, 위나라는 출병하지 않고 도리어 辛垣衍 장군을 보내어 조나라가 진나라를 ‘帝’로 높여 부를 것을 설득하였다. 노중련이 이 사실을 알고서 즉시 辛垣衍을 만나서 진나라를 ‘帝’로 높여 불렀을 때의 우환을 지적했다.辛이 이를 듣고서 더 이상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진나라 군대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50리를 후퇴하였다. 平原君이 노중련을 봉하여 관작을 주려하자, 그가 사절하며 말했다. “천하의 선비에게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환난을 없애주고 분란을 해결해주면서도 취함이 없는 것이다. 만약 취함이 있는 것은 장사치의 일이니, 나는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다.(所貴於天下之士者, 爲人排患解亂解紛亂而無取也. 卽有取者, 是商賈之事也. 而連不忍爲也.)” 이에 평원군과 작별하고 떠나서는 종신토록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이상 《史記·魯仲連鄒陽列傳》의 내용). 이로써 보면 제4구 ‘擊晉’이 ‘救趙’로 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송축본에는 ‘擊晉’으로 되어 있어 번역은 송축본을 따랐다. 王琦의 注 및 詹福瑞 등의 《李白詩全譯》(河北人民出版社, 1997)에서는 ‘擊晉’句를 朱亥의 전고를 인용한 것으로 보았다. 朱亥(미상 ~ BC 257)는 戰國時代 魏의 大梁 사람으로 용력이 있었지만 시장에서 도살업을 하면서 숨어 살았다. 侯嬴와 가깝게 지냈다. 秦나라가 趙나라의 수도 邯鄲을 침공할 때 趙의 平原君이 魏의 信陵君에게 구원을 간곡히 청했다. 위나라 왕이 진나라를 두려워하여 불응하자, 신릉군이 侯嬴의 계책을 써서 如姬를 통해 虎符(군사발동권)를 朱亥에게 주고 그를 시켜 위나라 장군 晉鄙를 살해하게 하고 병권을 빼앗아 군대를 동원 조나라를 구원해 포위를 풀도록 했다. 《集評》에서는 “王琦의 注에서는 朱亥가 晉鄙의 군영서 호부를 탈취하여 趙를 도운 것으로 여겼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 21) 詹福瑞 등의 《李白詩全譯》에서는 “大俠 朱亥처럼 信陵君이 자신을 알아준 은정을 갚기 위해 晉을 공격한 것을 공으로 삼지 않았네.”라고 해석하였다.
- 22) 高義: 정의에 부합하는 고상한 행위.

舉世欽英風.²³⁾ 온 세상은 영웅 풍모 흠모하였네.
 小節豈足言, 소소한 절개들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²⁴⁾
 退耕春陵東.²⁵⁾ 난 용릉 동쪽으로 물러났네.
 歸來無產業,²⁶⁾ 돌아오니 의식주를 해결할 가산이 없어
 生事如轉蓬.²⁷⁾ 삶이 굴러다니는 쭉쳐럼 일정하지 않네.
 一朝狐(一作烏)裘弊,²⁸⁾ 하루아침에 여우 갓옷은 해지고
 百鎰黃金空. 백 량 되는 황금도 이제 바닥이 났다.

23) 託身白刃裏, 殺人紅塵中. 當朝揖高義, 舉世欽英風.: 이상의 四句에 대해서 의견 및 논란이 많다. 《校注》에서는 “當朝揖高義, 舉世欽英風”은 이백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이 아래 “小節豈足言”에서 “生事如轉蓬”까지는 처지가 곤궁함을 말한 것으로 뜻이 이어지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이처럼 조용됨이 없어서는 안 되니, 이 四句가 없는 것이 옳은 것 같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集評》에서는 “이백이 협객풍의 영향을 매우 깊이 받았고, 또 직접적으로 큰 소리를 하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또한 魏顯의 <李翰林集序> 가운데서 ‘젊었을 때 협객을 자임하고 손수 여러 사람을 베었다(少任俠, 手刀數人)’라는 것과 서로 부합한다. 이 四句가 거짓일 리 없다. 이 시의 전반에서는 영웅의 풍모와 명성을 서술하고 후반에서는 곤궁한 처지를 서술하였으니 또한 뜻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集評》의 취지를 따라 번역하였다.

24) 朱諫은 “신비는 하기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있는데, 노중련이 진을 물리치고 보상을 받지 않은 것, 주해가 꿈을 공격하여 趙를 구원한 것과 같은 것으로 모두 작은 절조이니, 어떻게 말할 수 있으랴(士之有所不屑爲者, 如魯仲連卻秦之不受賞, 朱亥之擊晉救趙, 皆小節也, 何足言也.)”라고 하여 魯仲連, 朱亥의 행위들을 모두 ‘小節’로 보았다.

25) 春陵: 지금의 湖北省 襄陽縣이다. 《元和郡縣志》卷21의 <隨州襄陽縣>에서 “春陵의 故城은 현의 동남쪽 35리에 있다(春陵故城, 在縣東南三十五里.)”라고 하였다. 《選集》에서는 “春陵東은 湖北安陸을 말한다. 李白 <寄遠>의 五에 ‘첩은 春陵東에 있어요’라고 하였는데, 바로 許氏가 安陸에 살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 春陵東은 마땅히 大洪山의 동쪽 安陸을 말한다(春陵東, 指湖北安陸. 李白 <寄遠>之五云: ‘妾在春陵東, 卽指許氏居安陸可證. 春陵東當指大洪山之東的安陸.’)”라고 하였다.

26) 產業: 개인의 재산. 田地, 집 등을 말한다.

27) 生事如轉蓬: ○ 生事: 생계를 의미한다. ○ 轉蓬: 가을에 쭉이 뿌리째 뽑히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뜻으로,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님을 말한다. 《文選·曹植<雜詩>》의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쭉은 뿌리 뽑히어, 멀리서 부는 거센 바람 따라 휘날리네(轉蓬離本根, 飄飄隨長風.)”에 그 용례가 있다. 李善의 注에서는 《說苑》을 인용하여 “魯의 哀公이 말하길, ‘가을 쭉은 그 뿌리를 싫어하고 그 잎을 좋아한다. 가을바람이 한번 일면 뿌리가 뽑히기 때문이다(魯哀公曰: 秋蓬惡其本根, 美其枝葉, 秋風一起, 根本拔矣.)’”라고 하였다.

28) 一朝狐(一作烏)裘弊, 百鎰黃金空: ○ 一朝: 一時, 一旦의 의미. ○ 鎰은 고대 도량형의 단위로 二十兩 혹은 二十四兩이 ‘一鎰’이다. 《戰國策·秦策》에 다음의 내용이 있다. “(소진이) 진나라 왕에게 유세하여 10차레나 글을 올렸는데 유세가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그의 검은담비 갓옷이 해지고 황금 백 근도 소진되었다.(說秦王書十上而說不行, 黑貂之裘敝, 黃金百斤盡.)”

彈劍徒激昂,²⁹⁾ 검을 통기며 공연히 격앙만 하고
 出門悲路窮.³⁰⁾ 문을 나서서는 길이 막힌 것을 슬퍼하네.
 吾兄青雲士,³¹⁾ 우리 형은 고상한 선비로서,
 然諾聞諸公.³²⁾ 한 번 승낙한 말 천금처럼 지킨다고 못 사람들에게
 告 알려졌네.
 所以陳片言,³³⁾ 이로써 도움 청하는 몇 마디 말을 하니,
 片言貴情通.
 棣華儻不接,³⁴⁾ 형제간에 만약 의지할 수 없다면
 甘與秋草同.
 기꺼이 가을 쭉과 같이 되려네.

<校記>

제목이 咸本에는 ‘贈從兄皓’로 되어 있다. 蕭本・玉本³⁵⁾・郭本은 모두 제목 아래 ‘一作晤’라는 주가 없다.

제4구 ‘擊晉(一作救趙)’가 咸本・蕭本・玉本・郭本에는 모두 ‘救趙’라는 주가 없다. 劉本³⁶⁾・胡本³⁷⁾에는 모두 ‘救趙’로 되어 있다. 劉本の 注에 “救趙”는 어

29) 彈劍徒激昂, 出門悲路窮: 《史記・孟嘗君列傳》에는 전국시대에 齊나라 맹상군의 문객 馮驩이 일찍이 여러 차례 장검을 통기며 노래하며 생활이 여의치 않음을 개탄하였다. “長劍이 돌아왔는데 먹는데 생선이 없고, 장검이 돌아왔는데 나가는데 수레가 없네. 장검이 돌아왔는데 집으로 삼을만한 곳이 없구나!(長劍歸來兮, 食無魚, 長劍歸來兮, 出無車, 長劍歸來兮, 無以爲家!)”라고 하였다. 나중에 ‘彈劍’ 혹은 ‘彈鋏’으로 생활이 궁핍하여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비유하였다.

30) 路窮: 길이 막히다. 《晉書・阮籍傳》의 “늘상 마음 내키는 대로 홀로 수레를 몰고 나갔는데, 도로를 따라가지 않았다. 수레의 길이 다한 곳에 이르러서 대성통곡하고 돌아왔다(時率意獨駕, 不由徑路. 車迹所窮, 輒慟哭而反.)”에 그 용례가 있다.

31) 青雲士: 품행이 고상한 선비.

32) 然諾: 허락하다, 승낙하다. ‘一諾千金’ 즉 한번 승낙한 말은 천금과 같이 지킨다는 뜻으로 사용됨.

33) 陳片言: 간단한 몇 마디 말을 하다.

34) 棣華: 형제를 의미. 《詩經・小雅・常棣》의 “아가위 꽃, 꽃밭침 드러나 보이지 않겠는가. 지금의 사람 중에, 형제만한 사람 없다네(常棣之華, 鄂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에서 常棣는 꽃 이름으로 꽃이 한데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詩經》에서는 형제를 비유했다. ○ 儻: 倘과 통한다. 倘若 즉 만약의 의미.

35) 嘉靖25年(서기 1545년) 玉几山人의 校本 《分類補注李太白詩》25卷.

36) 明萬曆40年(서기 1612년) 劉世敎의 《合刻分體李杜全集》중 《李翰林全集》42卷.

떤 판본에는 ‘擊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제5,6,7,8구 “託身白刃裏, 殺人紅塵中. 當朝揖高義, 舉世欽英風.”: 蕭本·玉本·郭本·劉本·朱本·嚴評本·全唐詩本·王本에는 모두 이 네 구가 없다. 咸本の 注에는 “어떤 판본에는 이 네 구가 없다”라고 하였다. 玉本の 注에는 이 네 구를 인용하였다.

제10구 ‘春陵’의 ‘春’이 원래 宋蜀本에는 ‘春’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이다. 咸本·蕭本 이하에는 모두 ‘春’으로 되어 있다. 繆本³⁸⁾에는 ‘春’으로 고쳐져 있다.

제13구 ‘狐(一作烏)’의 ‘狐’가 咸本·蕭本·玉本·郭本·劉本·嚴評本·全唐詩本·王本에는 모두 ‘烏’로 되어 있다. 王本の 注에는 “어떤 판본에는 狐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다.

<詳釋>

젊은 시절에 내가 아직 세상물정 모를 때, 사귄 벗들은 모두 영웅호걸이었다. 나도 노중련처럼 지략으로 秦을 물리치고 의리로 보상을 받지 않으니, 趙를 구하고 어찌 공으로 삼을 수 있었을까? 옛 협객처럼 자신을 흰 칼날에 맡기고, 붉은 먼지 속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죽였다. 당대의 선비들은 정의를 실천하는 의리로 여기며 나에게 절하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나의 영웅다운 풍모를 흠모하였다. 어찌 소소한 절개들을 모두 다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제 春陵의 동쪽 安陸으로 물러나 은거하고 있다. 돌아오니 의식주를 해결할 가산이 없어, 생계가 굴러다니는 쑥처럼 되어 일정하지 않으니 막막하다. 당시 蘇秦이 秦王에게 유세하고 돌아왔을 때처럼, 하루아침에 여우 갓옷은 해지고, 백 량되는 황금도 이제는 바닥이 나서 텅 비었다. 우리 형은 고상한 선비로서, 남 돕는 것을 즐기고 한번 승낙한 말은 천금처럼 지켜서 신용 있는 사람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래서 종형에게 도움을 구하는 몇 마디 절박한 말을 하니, 몇 마디 절박한 말이 형제의 정으로 통하기를 바란다. 만약 종형이 형제의 정을 돌아보지 않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는 기꺼이 가을

37) 淸順治7年(서기 1650년) 胡震亨의 《合刻李杜詩通》중 《李詩通》21卷.

38) 淸 繆曰芑의 송축본을 영인한 《李翰林集》30卷.

쑥처럼 이러 저리 굴러다니겠다.

<解説>

이 시는 開元15년(서기 727년)에 지은 것이다. 이 시기는 이백 자신이 지닌 금전이 소진되어 安陸으로 와서 은거할 때인데, 그 사이에 襄陽으로 가서, 당시 襄陽의 縣尉인 중형 李皓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을 쓴 것이다. 이 시의 내용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앞 단락에서는 협객의 기풍을 가지고 의리를 숭상하는 노중륜을 인용하여 자신을 비유하고 자신의 의협심 있는 행동들 뒤에 있는 궁핍한 생활처지를 묘사하였다. 뒤 단락에서는 중형이 ‘一言千金’의 靑雲之士로서 세상에서 추앙받는 것을 칭송하고 이로써 감정에 호소하였다. 끝 두 구에서 시인은 만약 중형이 형제의 정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스스로 기꺼이 가을 쑥처럼 되겠다고 하였다. 작품 전반은 시인의 이상적 의협심과 현실적 생활의 곤궁이 交織되고 대비되면서 이백시의 색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2.3. 제3수 장공주에 있는 혁처사에게 드림(贈張公洲革處士³⁹⁾)

列子居鄭圃,⁴⁰⁾

열자가 정포에 거할 때

39) 張公洲: 張公洲에 대해 楊齊賢은 “장공주는 상원현에 있다(張公洲, 在上元縣)”라고 주석을 하였고, 王琦는 “《景定建康志》에서 ‘장공주는 성 서남쪽 5리에 있으며, 둘레가 3리이다’라고 하고 있고, 《湖廣通志》에서는 ‘장공주는 무창부 성 남쪽 20리에 있으며, 진 은사 장공이 밭에 물 주던 곳이라서, 이름 지어졌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면, 장공주는 두 곳이 있다. 시에서 楚人이라고 하고, 漢水라고 한 것을 보니, 무창의 장공주를 일컫는 것이지, 상원에 있는 것은 아니다(按《景定建康志》: ‘張公洲, 在城西南五里, 周圍三里.’《湖廣通志》: ‘張公洲在武昌府城南二十里, 晉隱士張公灌園處, 因名.’是有二張公洲. 觀詩中所云楚人、云漢水, 則是調武昌之張公洲, 而非在上元者矣.)”라고 주석을 하였다. ○ 革處士: 革씨 성을 가진 은사를 가리킨다.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처사란 옛날에 재주와 덕을 갖추었지만 은거하여 벼슬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

40) 鄭圃: 옛 지명. 지금 河南省 中牟縣 서남쪽에 있다. 《列子·天瑞》에 “열자가 鄭圃 땅에 40년을 살았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라 임금이나 경대부들도 그를 보고 일만 백성들과 같이 여겼다(子列子居鄭圃四十年, 人無識者. 國君卿大夫視之, 猶衆庶也.)”라는 전고가 있다. 朱諫은 “鄭圃는 땅이름이다. 주나라가 성할 때, 천자가 제후들을 사냥터에 모이게 해서, 그 땅을 정에게 주었다. 그래서 鄭圃라고 한 것이다. 즉, 《시경》에서 말한 圃田은 주나라 동도(역주: 지금의 洛陽 부근)کن내에 있다(鄭圃, 地名. 周之盛時, 天子會諸

不將衆庶分.⁴¹⁾

革侯遁南浦,⁴²⁾

常恐楚人聞.

抱甕灌秋蔬,⁴³⁾

心閑遊天雲.

每將瓜田叟,⁴⁴⁾

耕種漢水濱(一作漬).

時登張公洲,

入獸不亂羣.⁴⁵⁾

그는 일반 사람과 다르질 않았네.

혁처사는 장공주에서 은거하고 있는데

초 사람이 알까 늘 두려워하네.

포옹노인처럼 가을 채소에 물 주고

마음은 하늘 떠다니는 구름처럼 한가롭구나.

언제나 외밭의 늙은 남정네를 도와

한수가에서 농사를 짓네.

지금 장공주에서 사는데

짐승들 사이로 가도 그 무리 흩어지지 않네.

侯田獵之所，後以其地封鄭，故曰鄭圃。即《詩》所謂圃田，在周東都畿內。”라고 주석을 하였다.

41) 將: ‘與’의 뜻으로 ‘~와(과)’이다.

42) 革侯: 혁처사에 대한 존칭이다. 侯는 옛날에 선비들 사이에서 쓰이던 존칭이다. ○ 南浦: 지명. 王琦는 “남포는 바로 장공주로 성의 남쪽에 있어서, 남포라고 일컫는다(南浦, 卽張公洲, 以在城之南, 故曰南浦).”라고 주석을 하였다.

43) 抱甕: 항아리를 안다. 여기에서는 항아리를 안은 노인, 즉 포옹노인을 이룸. 《莊子天地》에 “자공이 남쪽으로 초나라를 유람하고 나서 진나라로 되돌아오며 한수 남쪽을 지나가다가 한 노인이 채마밭을 돌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노인은 땅굴을 파고 우물에 들어가 항아리에 물을 담아 나와서는 물을 주고 있었다. 공공거리며 힘을 많이 썼지만, 효과는 적었다. 자공이 말하였다. ‘여기에 기계가 있다면, 하루에 많은 밭에 물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힘을 아주 적게 들고도 효과는 클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왜 쓰지 않으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들고 자공을 보며 말하였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공이 말했다. ‘나무에 구멍을 뚫어 만든 기계입니다. 뒤는 무겁고 앞은 가벼워, 물을 쪽쪽 자아올릴 수 있는데, 물이 끓어 넘치는 것만큼 빠릅니다. 그것의 이름은 두레박입니다.’ 노인은 성난 듯한 얼굴 빛을 지었다가 잠시 후 웃으며 말했다. ‘내가 우리 스승께 듣기로는, 기계를 가진 자는 반드시 피를 부리는 일이 생기고, 피를 부리는 일이 생기는 사람은 반드시 피를 부리는 마음이 생기고, 피를 부리는 마음이 가슴에 차 있으면, 순박함이 갖추어지지 않게 되고, 순박함이 갖추어지지 않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도가 깰지 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기계의 쓰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쓰지 않는 것이요.’(子貢南遊於楚，反於晉，過漢陰，見一丈人方爲圃畦，鑿隧而入井，抱甕而出灌，搦掇然用力多而見功寡，子貢曰：‘有械於此，一日浸百畦，用力甚寡而見功多，夫子不欲乎？’爲圃者叩而視之曰：‘奈何？’曰：‘鑿木爲機，後重前輕，挈水若抽；數如沚湯，其名爲槩。’爲圃者忿然作色而笑曰：‘吾聞之吾師，有機械者必有機事，有機事者必有機心。機心存於胸中，則純白不備；純白不備，則神生不定；神生不定者，道之所不載也。吾非不知，羞而不爲也。’)”라는 전고가 있다. 이후로 抱甕은 둔하고 순박한 삶에 안주함을 비유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44) 將: 詹鏤은 돕다 혹은 거느리다의 뜻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돕다의 뜻을 취해 번역하였다.

45) 入獸不亂羣: 짐승들 사이로 가도 그 무리 흩어지지 않네. 《莊子·山木》에 “공자는 ‘맞습니다.’라고 말하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자신의 제자를 떠나 큰 늪지로 가서, 갯옷과

井無桔槔事, 46)

우물에 두레박 쓸 일이 없고

門絕刺繡文. 47)

문엔 꽃무늬 수놓은 관복 입은 이 들이지 않네.

長揖二千石,

태수에겐 장읍할 뿐

遠辭百里君. 48)

현령은 멀리하네.

斯爲眞隱者,

이 분이야말로 진정한 은자이시니

吾黨慕清芬. 49)

우리들은 그의 고결한 덕행을 우러르네.

<校記>

제8구의 ‘濱’은 咸本·蕭本·玉本·郭本·朱本·英華⁵⁰⁾에서는 모두 ‘濱’으로 되어 있다.

제12구의 ‘門’은 英華에서는 ‘閑’으로 되어 있다.

<詳釋>

열자가 정포라는 곳에 40년을 살았지만, 임금이나 경대부들은 모두 그를 일

베옷을 입고, 도토리나 밤을 먹으며 살았다. 짐승들 사이로 들어가도 짐승들은 흠여지지 않았고, 새들 틈에 들어가도 새들의 행렬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새와 짐승들도 그를 싫어하지 않았으니, 하물며 사람들이야! (孔子曰: ‘善哉!’ 辭其交遊, 去其子弟, 逃於大澤, 衣裘褐, 食枲粟, 入獸不亂羣, 入鳥不亂行. 鳥獸不惡, 而況人乎!’)라는 전고가 있다.

46) 桔槔: 두레박. 陸德明은 “槔는 桔槔이다(槔, 桔槔也.)”라고 주석을 하였으며, 《說文》의 木部에 “桔槔는 물을 푸는 기계이다(桔槔, 汲水器也.)”라고 하였다.

47) 門絕刺繡文: 刺繡文은 무늬를 수놓은 관복. 《史記貨殖列傳》의 “대체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려고 하는 방법으로, 농사짓는 것이 물건 만드는 것보다 못하고, 물건 만드는 것은 장사보다 못하다. 수놓은 일보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이 낫다(夫用貧求富, 農不如工, 工不如商, 刺繡文不如倚市門)”에 그 용례가 있다. 安旗는 “黼黻로, 관복에 수놓은 무늬이다. 당나라 제도에는 5품 이상은 모두 黼黻이 있었다. 《新唐書車服志》에서 보인다. 이 구는 혁처사가 고관과 귀족들과 왕래하지 않음을 일컫는 것이다(謂黼黻, 官服上刺繡之花紋. 唐制: 五品以上皆有黼黻. 見《新唐書車服志》. 句謂革處士不與達官貴人往來.)”라고 주석을 하였다.

48) 二千石, 百里君: 漢나라 때 郡 태수의 봉록이 이 천석이였기 때문에 후대에 태수를 이천석이라 일컬었으며, 옛날에 현령이 관할하는 지역의 면적이 백리였기 때문에 현령을 백리군이라 일컬었다.

49) 黨: 친구, 고향사람. 詹鍔은 《論語公冶長》의 “내 고향 사람들 중 젊은 학생들은 뜻한 바는 크나 일 처리가 소홀하다(吾黨之小子狂簡.)”라는 예문을 들어 黨을 ‘고향사람’으로 해석하고 있고, 郁賢皓는 “黨을 ‘친구’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시의 경우 ‘친구’라는 뜻이 더욱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郁賢皓의 해석을 취하였다.

50) 明隆慶 간행본에 中華書局 영인본을 참고한 《文苑英華》.

반 백성처럼 여겨 그는 일반백성과 다르지 않게 살았다. 지금 혁처사가 장공주에서 은거하고 있는데, 자신이 초 땅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까 두려워한다. 그는 인위적인 것을 배척하고 사는 포옹노인처럼 가을 채소에 물을 주고, 마음은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한가롭게 지내고 있다. 그는 언제나 외밭에서 일하는 늙은 남정네를 도와 그들과 함께 한수가에서 농사를 짓는다. 지금 그는 장공주에서 살고 있는데, 공자처럼 짐승들 사이로 가도 짐승들은 흠어지지 않는다. 우물에는 물을 푸는 기계인 두레박을 쓸 일이 없고, 집안엔 꽃무늬 수놓은 관복을 입은 고관대작들 들이지 않는다. 혁처사는 태수가 찾아오면 장읍만 할 뿐이고, 현령이 찾아오면 멀리하여 만나지를 않았다. 혁처사야 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은자이시니, 우리들은 혁처사의 고결한 덕행을 우러른다.

<解説>

이 시는 혁처사가 은거하며 벼슬에 나아가지 않는 고귀한 품성을 노래하고 있다. 《繫年》에서 이 시를 開元 22년(서기 734년) 江夏(지금의 湖北省 武漢市)를 유람할 때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제1구에서 제8구까지로 혁처사가 열자처럼 드러내지 않고 장공주에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포옹노인처럼 인위적인 것을 멀리 하고 채소에 물주고 받을 매면서 한가롭게 지내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제9구에서 제16구까지로 혁처사가 《장자》에서 묘사된 공자처럼 인위적인 것을 멀리 하고 벼슬아치들을 멀리하는 것을 묘사하며 혁처사가 진정한 은자라고 추앙하고 있다.

嚴評本에서 이 시를 비평한 명나라 사람의 글을 실었는데, 음미할 만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의 뜻과 자구를 다듬은 정도가 그다지 꼼꼼하지 못하다. ‘漢濱’과 ‘桔槔’은 모두 ‘抱甕’의 의미를 밝힌 것이다. 홀연 ‘刺繡文’이 나온 것은 적합하지 않다. 비록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말하지만 맛이 줄어들어 없지 않다.(鎔裁尙未密,……‘漢濱’、‘桔槔’俱申抱甕意,忽出‘刺繡文’,無當,雖云不必拘,然不無減味.)”

2.4. 제4수 회해에서 눈을 대하고 부애에게 드림(어떤 판본에는
회해에서 눈을 대하고 맹호연에게 드림으로 됨)(淮海對雪贈傅靄⁵¹⁾)
〔一作淮海對雪贈孟浩然〕

朔雪落吳(一作潮)天, ⁵²⁾	북방의 눈이 오 땅 하늘에서 날리다가
從風渡溟渤. ⁵³⁾	바람 따라 대해를 건너가네.
海樹(一作木)成陽春, ⁵⁴⁾	해변 나무에 눈 꽃피니 양춘이 된 듯하고
江沙浩明月.	강가 모래에도 쌓여 명월을 빛나게 하네.
飄飄四荒外, ⁵⁵⁾	펄펄 황량한 저 사방 너머까지 날리니
想像千花發. ⁵⁶⁾	온갖 꽃이 피는 것 같구나.

51) 淮海: 지금의 江蘇省 揚州市이다. 王琦는 “<禹貢>에 ‘淮水와 바다 사이는 오직 양주만 있다’라고 했는데, 양주 지역은 북으로는 淮水에 이르고, 동남쪽으로는 바다에 이름을 일컫는 것이다. 후에 사람들이 양주를 淮海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에 근거한 것이다(<禹貢>: ‘淮海惟揚州.’ 謂揚州之域, 北至淮, 東南至海也. 後人稱揚州曰淮海, 本此.)”라고 주석을 하였다. ○ 傅靄: 미상. 郁賢皓는 ‘傅靄’가 아니라 ‘孟浩然’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지만, 어느 것이 옳은 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52) 朔雪: 북방의 눈. 鮑照 <學劉公幹體>의 “삭풍은 북방의 눈을 불어, 천리 길 너머 용산을 넘게 하네(胡風吹朔雪, 千里度龍山.)”에 그 용례가 있다.

53) 從風: 바람을 따르다. 謝惠連 <雪賦>의 “구름에 기대어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바람 따라 홀날리네(憑雲升降, 從風飄零.)”에 그 용례가 있다. ○ 溟渤: 溟海와 渤海. 보통 大海를 총칭한다. <文選>권31 鮑照 <代君子有所思>의 “뭇을 뗏는데 명발과 같네(穿池類溟渤.)”에 그 용례가 있다. 이 글에 李善이 “명발은 두 바다의 이름이다(溟渤, 二海名)”라고 주석을 하였다. 朱諫은 “오당은 강의 남쪽에 있고, 회수는 강의 북쪽에 있다. 명발은 회해를 일컫는 것이다(吳在江南, 淮在江北, 溟渤, 謂淮海也.)”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大海’라는 뜻을 취하였다.

54) 海樹: 바닷가 나무. 江總 <秋日登廣州城南樓詩>의 “바닷가 나무가 한쪽에서 자라있고, 산의 구름은 사방으로 흘러간다(海樹一邊出, 山雲四面通)”에 그 용례가 있다. ‘梅’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는데, 朱諫은 ‘梅’가 옳다고 여겨 “梅成陽春이라는 것은 매화가 눈 내릴 때이지만, 초봄을 알린다(梅成陽春者, 梅開於雪而報先春也)”라고 주석을 하였다.

55) 四荒: 사방의 황량하고 궁벽진 곳. 屈原 <離騷>의 “홀연히 고개 돌려 이리저리 사방을 둘러보며, 장차 머나먼 사방의 황원으로 가 보려네(忽反顧以遊目兮, 將往觀乎四荒.)”에 그 용례가 있다.

56) 想像千花發: 마치 온갖 꽃이 피는 것 같도다. 蕭子顯은 <燕歌行>에서 “낙양의 배꽃이 눈처럼 날리네(洛陽梨花落如雪.)”라고 하였다. 詹鐸은 이백의 “想像千花發”과 岑參 <白雪歌送武判官歸京>의 “문득 하룻밤 새 봄바람이 불어와, 천 그루 만 그루에 배꽃이 피어난 듯(忽如一夜春風來, 千樹萬樹梨花開.)”는 모두 蕭子顯 시의 뜻을 역으로 사용하여 지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瑤草生階墀, 57)

玉塵散庭闕, 58)

興從剡溪起, 59)

思繞梁山發, 60)

寄君郢中歌, 61)

눈 덮인 풀은 섬돌위에 자라 있고

눈은 궁궐에 흩날리네.

왕자유가 섬계의 친구 보고픈 흥취 일어나고

생각은 그대 있는 양산을 맴돌며 떠오르네.

그대에게 郢 땅의 <白雪> 노래 불러 줄 것이니

57) 瑤草: 《文選》권22 江淹의 <從冠軍建平王登廬山香爐峯> “진귀한 풀은 막 무성하고, 구슬 같은 나무도 실로 아주 푸르듯하네(瑤草正翕純, 玉樹信葱青.)”에 李善이 “瑤草는 옥같은 지초이다(瑤草, 玉芝也)”라고 주석을 하였지만, 詹鍈는 눈에 덮인 풀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詹鍈의 설을 취하였다.

58) 玉塵: 신선의 음식물 혹은 찻잎의 분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눈, 꽃잎, 작은 물방울을 비유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눈을 비유하고 있다. ○ 庭闕: 궁궐

59) 剡溪(섬계): 지명으로, 지금 浙江省 嵊縣 曹娥江 상류에 있다. 《世說新語任誕》에 “왕자유가 산에 살고 있었는데, 밤에 눈이 많이 내렸다. 자다가 깨어, 문을 열고 술상 차리라고 명하였다. 사방을 둘러보니 하얗게 빛이 나 있었다. 그래서 일어나 이리저리 거닐며, 좌사의 <招隱詩>를 읊었다. 문득 대안도가 생각이 났는데, 그 때는 대안도가 섬계에 있었다. 바로 즉시 밤에 작은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갔다. 날 셀 때쯤 그 곳에 이르렀는데, 문까지 가서는 더 이상 가지 않고 되돌아왔다. 누군가가 그 연유를 물으니, 왕자유가 말했다. ‘난 본시 흥이 일어 가서는, 흥이 다해 되돌아 온 것일 뿐입니다. 굳이 대안도를 만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王子猷居山陰, 夜大雪, 眠覺, 開室, 命酌酒. 四望皎然, 因起彷徨, 詠左思<招隱詩>, 忽憶戴安道. 時戴在剡, 即便夜乘小舟就之. 經宿方至, 造門不前而返. 人問其故, 王曰: ‘吾本乘興而行, 興盡而反, 何必見戴?’)라는 전고가 있다.

60) 梁山: 漢 梁孝王의 兔園이다. 《文選》권13 謝惠連의 <雪賦>에 “한 해가 끝날 무렵, 날은 이미 어두워졌다. 차가운 바람은 몰아치고, 암담한 구름이 그득하였다. 양왕은 기분이 좋지 않아, 토원으로 바람 쐬러 갔다. 맛 좋은 술을 차리고, 빈객과 벗을 불렀다. 鄒陽을 부르고, 枚乘도 불렀다. 司馬相如가 제일 늦게 이르러서는, 빈객의 오른쪽에 자리 잡았다. 금세 싸라기눈이 흩날리고, 함박눈이 내렸다. 왕은 衛風의 <북풍>을 노래했고, 小雅의 <信南山>을 읊었다. ……鄒陽은 그것(역주: 사마상여의 부)을 듣고 자신의 시에 불만을 느끼고 사마상여의 부에 탄복하여 화려한 노래를 생각하여 사마상여의 부를 삼가 이어받아서 적실지가를 지어 읊었다(歲將暮, 時既昏. 寒風積, 愁雲繁. 梁王不悅, 遊於兔園. 乃置旨酒, 命賓友, 召鄒生, 延枚叟, 相如未至, 居客之右. 俄而微霰零, 密雪下. 王乃歌<北風>於衛詩, 詠<南山>於周雅. ……鄒陽聞之, 愀然心服. 有懷妍唱, 敬接末曲. 於是乃作而賦積雪之歌.)”라는 전고가 있다.

61) 郢中歌: 郢은 춘추전국시대의 초나라의 수도이다. 지금 湖北省 荊州市 荊州區 동북쪽에 위치해 있다. 郢中歌는 郢 땅의 <백설> 노래. 《文選》권45에 宋玉의 <對楚王問>에 “한나그네가 郢에서 노래를 하였는데, 처음에 <下里>와 <巴人>을 부르니, 도성에서 따라 부르는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렀고, 그 사람이 <陽阿>와 <薤露(해로)>를 부르니, 도성에서 따라 부르는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르렀고, 그 사람이 <陽春>과 <白雪>을 부르니, 도성에서 따라 부르는 사람이 불과 수십 명에 이르렀습니다. 商음도 쓰고 羽음도 쓰고, 변화 많은 徵(치)음도 끼어 사용하니, 도성에서 따라 부르는 사람이 불과 몇 명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노래가 고아할수록 따라 부르는 사람이 적다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客有歌於郢中者, 其始曰<下里巴人>, 國中屬而和者數千人; 其爲<陽阿薤露>, 國中屬而和者數

曲罷心斷絕.⁶²⁾

이 노래 다하면 나의 애간장이 탈 것이네.

<校記>

제목에서 英華의 경우는 ‘一作淮海對雪贈孟浩然’라는 글이 없다.

제목의 ‘傳’가 英華에서는 ‘傳’으로 되어 있는데, 詹鐸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제1구 ‘朔雪落吳(一作潮)天’에서 咸本·蕭本·玉本·郭本の 경우는 ‘一作潮’가 없다.

제3구의 ‘海樹(一作木)成陽春’에서 咸本·蕭本·玉本·郭本の 경우는 ‘一作木’이 없다. ‘海’는 蕭本·王本·郭本·嚴評本에서 모두 ‘梅’라고 되어 있다.

제4구의 ‘沙’는 英華에 ‘山’이라고 되어 있는데, 詹鐸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제5구에서 제8구까지는 咸本·蕭本·玉本·郭本·朱本·劉本·嚴評本·胡本·全唐詩本·王本·英華에는 없다. 咸本·劉本·胡本·全唐詩本·王本에서는 注에서 이 4구를 인용하고 있다. 詹鐸은 이 4구가 설경을 더욱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빼지 말고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9구에서 제12구까지는 “剡溪興空在, 郢路歌未歇. 寄君<梁父吟>, 曲盡心斷絕.”라고 되어 있는 판본도 있지만, 咸本·蕭本·玉本·郭本에는 “一云剡溪興空在, 郢路歌未歇. 寄君<梁父吟>, 曲盡心斷絕.”라는 글이 없다.

제10구의 ‘山’은 咸本·蕭本·玉本·郭本·嚴評本·王本에 ‘園’으로 되어 있다. 詹鐸은 ‘園’이 옳다고 하며 이 글자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詳釋>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오 땅 하늘에서 날리다가, 바람을 따라 저 멀리 대해를 건너간다. 눈은 해변에 피어 있는 나무에 꽃 마냥 쌓여 날은 양춘이 된

百人; 其爲<陽春白雪>, 國中屬而和者不過數十人. 引商刻羽, 雜以流徵, 國中屬而和者不過數人而已. 是其曲彌高, 其和彌寡.”라는 전고가 있다. 朱諫은 “郢 땅에서의 노래는 백설곡이다(郢中歌, 白雪曲也.)”라고 주석을 하였다.

62) 曲罷心斷絕: 이 구절과 유사한 것으로 鮑照의 <東門行>중의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찢어지네(涕零心斷絕)”가 있다.

듯하고, 눈은 또 강가 모래에도 쌓여 명월을 빛나게 한다. 눈은 황량하고 궁벽진 저 사방 너머까지 펄펄 날리는데, 마치 온갖 꽃이 만발한 것처럼 보인다. 눈이 내려 눈에 덮인 풀이 섬돌 위에 자라 있고, 옥같이 하얀 눈이 궁궐 안에도 흩날리고 있는 것이 상상이 된다. 섬계에 있던 대안도가 보고파서 찾아가려고 했던 왕자유의 흥취가 일어나고, 그대 있는 양산에서 양효왕이 빈객들을 불러 노래하고 시를 짓던 모습이 생각난다. 그대에게 郢 땅의 고매한 노래인 <白雪>가를 불러줄 것이니, 이 노래 다하면 그대 생각에 나의 애간장이 탈 것이다.

<解説>

이 시는 벼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이다. 창작 시기에 대해 《繫年》에서는 天寶6년(서기 747년)이라고 하며, “《文苑英華》는 이 시를 수록하고 있지만, ‘一作’ 이하의 작은 글자 8자가 없다. 《英華》가 옳다고 생각한다. 孟浩然是 開元 28년(역주: 서기 740년)에 죽었다. 시에서 ‘興從剡溪起, 思繞梁園發’라고 한 것으로 보아 梁園에서 손님으로 지내던 이후에 지은 것 같다. 또한 ‘海樹成陽春, 江沙浩明月.’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天寶6년 봄 淮南을 다시 여행 할 때 지은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校注》에서는 “詹氏は 시에 梁園이라는 두 글자가 있는 것으로 해서 梁園에서 손님으로 지내던 이후에 지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唐人들은 종종 梁園과 剡溪로 눈을 대하는 전고로 삼았다. 梁園에서 손님으로 지낸 것과는 아마도 서로 상관이 없는 듯하다”라고 하였다.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제1구에서 제8구까지로 모두 설경을 묘사하고 있다. 북쪽에서 건너 온 눈이 바닷가 나무 위에 떨어져 있는데 마치 따뜻한 봄에 나무에 꽃이 만개한 듯 하고, 강가의 모래사장에 눈이 쌓여 밝은 달을 빛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시인은 대하고 있다. 그리고 시인은 상상의 나래를 펴서 눈 덮인 풀이 섬돌 위에 자라 있고 옥 같은 눈이 궁궐 안에 흩날리는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제9구에서 제12구까지로 ‘雪’과 관련된 3개의 전고를 사용하여 눈을 대하고 촉발된 벼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는 서정과 서경이 잘 결합되어 있는데, 특히 “海樹成陽春, 江沙浩明月.

興從剡溪起, 思繞梁園發.” 부분의 ‘情景交融’이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2.5. 제5수 안의현 서현령께 드림(贈徐安宜⁶³⁾)

白田見楚老, ⁶⁴⁾	백전에서 초땅 늙은이 만났는데
歌詠徐安宜.	안의현 서현령을 가송하였네.
製錦不擇地, ⁶⁵⁾	다스림에 뛰어나 땅을 가릴 필요 없었고
操刀良在茲.	다스림은 참으로 이곳에서 이루어졌네.
清風動百里,	청렴한 기풍은 사방 백리에 미쳤고

63) 徐安宜: 성이 서씨인 安宜縣의 縣令. 안의현은 지금의 江蘇省 揚州市에 속해 있는 한 현이다. 《舊唐書地理志三》<淮南道楚州寶應縣>에 “무덕4년(역주: 서기 621년)에 창주를 설치하여 안의현을 통할하게 했다. 7년에, 창주를 없애고, 안의현을 초주에 예속시켰다. 숙종 상원 3년(역주: 서기 762년) 건 사월(역주: 음력 4월)에, 이 현에서 국보 13개를 얻었다. 보응으로 연호를 바꾼 때라, 그것을 따라 안의를 보응이라 하였다(武德四年, 置倉州, 領安宜一縣. 七年, 州廢, 縣屬楚州. 肅宗上元三年建巳月, 於此縣得定國寶十三枚, 因改元寶應, 仍改安宜爲寶應.)”라고 하였다.

64) 白田: 안의현에 있는 지역명. 王琦는 “백전은 안의의 땅이름이다. 《江南通志》에 ‘백전 나루는 보응현 남문밖에 있다’라고 했다. 초로는 초 땅의 부로이다(白田, 安宜地名, 《江南通志》: ‘白田渡, 在寶應縣南門外.’ 楚老, 楚地父老也.)”라고 주석을 하였다.

65) 製錦不擇地: 製錦은 ‘비단으로 옷을 짓다’이나 여기에서는 ‘다스림에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左傳》襄公31년에 “자피가 윤하에게 읍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자산이 말했다. ‘아직 어려서,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겠나이다.’ 자피가 말했다. ‘그는 사람됨이 충직하여, 내가 그를 아끼는 것이다.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요, 가서 다스리는 것을 배우게 한다면, 그는 점점 다스리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이요.’ 자산이 말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아낀다는 것은 그가 이로움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께서 사람을 아끼어 다스리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이가 고기를 자르는 것과 같이, 상처가 실로 클 것입니다. 그대가 사람을 아끼는 것은 그 사람을 다치게 할 뿐입니다. 그 누가 감히 그대의 아낌을 받고자 하겠습니까?……그대가 좋은 비단을 가지고 있다면, 남한테 연습 삼아 옷을 만들어보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중요한 공무와 중요한 지역은 사람들이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심자 보고 담당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을 좋은 비단과 비교한다면 더 귀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子皮欲使尹何爲邑. 子產曰: ‘少, 未知可否.’ 子皮曰: ‘願, 吾愛之, 不吾叛也, 使夫往而學焉, 夫亦愈知治矣.’ 子產曰: ‘不可. 人之愛人, 求利之也. 今吾子愛人則以政, 猶未能操刀而使割也, 其傷實多. 子之愛人, 傷之而已, 其誰敢求愛於子? ……子有美錦, 不使人學製焉. 大官大邑, 身之所庇也, 而使學者製焉. 其爲美錦, 不亦多乎!’)라는 전고가 있다. 杜預는 “製는裁이다(製, 裁也)”라고 주석을 하였다. 安旗는 “여기는 전고를 거꾸로 사용하여, 서현령이 다스림에 능숙함을 비유하였다(此處反用其事, 以喻徐令嫺於吏治.)”라고 주석을 하였다.

惠化聞京師.⁶⁶⁾

浮人若雲歸.⁶⁷⁾

耕種滿郊岐.⁶⁸⁾

川光淨麥隴,

日色明桑枝.⁶⁹⁾

訟息但長嘯.⁷⁰⁾

賓來或解頤.⁷¹⁾

青槐拂戶牖,

白(一作碧)水流園池.⁷²⁾

그 업적과 감화는 도읍까지 알려졌네.

유랑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교외 들판엔 농작물이 가득 심어져 있네.

강물 빛에 보리밭은 깔끔하고

햇빛에 뽕나무 가지 밝구나.

소송이 그치니 그저 긴 휘파람만 불며 지내고

손님은 와서 모두 웃음꽃을 피우네.

푸른 왜나무 문에서 하늘거리고

하얀 물은 정원 연못으로 흘러들어가네.

66) 惠化: 사람들이 칭송하는 지방관의 정치적 업적과 가르침. 《三國志·魏書·盧毓傳》의 “안평, 광평태수를 옮겨 맡았는데, 가는 곳마다 치적을 쌓고 가르침을 펼쳤다(遷安平、廣平太守, 所在有惠化).”에 그 용례가 있다. ○ 京師: 京은 원래 幽國의 지명이고, 師는 도시의 의미인데, 후에 수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詩經·大雅·公劉》의 “경 땅 들판, 여기에 살 곳을 정했네.(京師之野, 於時處處.)”에 그 용례가 있다. 《公羊傳》 桓公9년에 “경사란 무엇인가? 천자가 거하는 곳이다. 경이란 무엇인가 큰 것이다. 사란 무엇인가? 많다는 것이다. 천자가 거하는 곳이라 반드시 많고 크다는 어휘로써 말한 것이다(京師者何? 天子之居也. 京者何? 大也. 師者何? 衆也. 天子之居, 必以衆大之辭言之.)”라고 하였다.

67) 浮人: 유랑인. 朱諫은 “浮人是 유랑인이다. 머물러 거할 수 있는 고정된 재산이 없는 자이다(浮人, 流人也. 無恒產之可居者也.)”라고 하였다.

68) 郊岐: 교외 큰 길 중의 갈림길. 謝靈運 <遊南亭>의 “여관에서 교외의 갈림길을 조망하네(旅館眺郊岐.)”에 그 용례가 있다.

69) 川光淨麥隴, 日色明桑枝: 강물 빛에 보리밭은 깔끔하고, 햇빛에 뽕나무 가지 밝구나. 《後漢書》권 31 <郭杜孔張廉王蘇羊賈陸列傳>에 “논 팔천 여 이랑을 개간하고, 백성들에게 경작을 권해, 백성들은 풍성하고 넉넉해졌다. 백성들이 노래하였다. ‘뽕나무 가지에는 잔가지 자라지 않고, 보리에는 이삭이 두 개가 났네. 장 선생의 다스림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네.’(開稻田八千餘頃, 勸民耕種, 以致殷富. 百姓歌曰: ‘桑無附枝, 麥穗兩岐. 張君爲政, 樂不可支.’)”라고 하였는데, 이 두 구는 이 내용에 근거하였다.

70) 長嘯: 휘파람을 길게 불다. 《後漢書》권 67 <黨錮列傳>의 “남양태수는 잠공효, 홍농사람 성진은 그저 앉아서 휘파람만 부네(南陽太守岑公孝, 弘農成瑨但坐嘯.)”에 그 용례가 있다. 長嘯라는 것은 숨을 내쉬고 입을 오물려서 소리를 내는 것으로, 한가한 모습이다. 역사책에서 ‘홍농사람 성진은 그저 앉아서 휘파람만 부네’라고 했는데, 그것은 일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長嘯者, 舒氣噉口以作聲, 閑暇之態也. 史云弘農成瑨但坐嘯, 言其無事也.)”라고 하였다.

71) 解頤: 얼굴을 펴고 활짝 웃다. 《漢書·匡衡傳》의 “여러 선비들이 그를 칭찬하여 말했다. ‘《시경》에 대해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광형이 올 것입니다. 광형이 《시경》을 논하면 모두들 얼굴을 펴고 활짝 웃으실 겁니다.’(諸儒爲之語曰: ‘無說《詩》, 匡鼎來. 匡說《詩》, 解人頤. ’)”에 그 용례가 있다. 顏師古는 여기에 “여쭙는 말했다. 사람이 웃음을 그칠 수 없게 하는 것(如淳曰: 使人笑不能止也.)”이라고 주석을 하였다.

遊子滯安邑,⁷³⁾ 나그네는 안의현에 머물다가
 懷恩未忍辭.⁷⁴⁾ 은혜를 생각하며 차마 떠나지 못하네.
 繫君樹桃李,⁷⁵⁾ 아! 그대께서 도리를 심으면
 歲晚託深期.⁷⁶⁾ 세월 흐른 뒤 큰 기대 걸 수 있으리.

<校記>

제9구의 ‘麥隴’은 朱本에는 ‘壘麥’으로 되어 있다.

제13구의 ‘槐’는 蕭本・玉本・郭本・劉本・朱本・全唐詩本・王本에는 ‘橙’으로 되어 있다.

제14구 ‘白(一作碧)水流園池’는 蕭本・玉本・郭本の 경우 ‘一作碧’이 없다.

제16구의 ‘辭’는 朱本・胡本에서는 ‘歸’로 되어 있다.

제17구의 ‘繫’는 蕭本・玉本・郭本・王本에서는 ‘翳’로 되어 있다.

제17구의 ‘樹’는 蕭本・玉本・郭本에서는 ‘獨’으로 되어 있고, 朱本에서는 ‘若’으로 되어 있다. 劉本에서는 注에서 ‘一作若桃李’라고 하였다. 詹鐸은 모두 그르

72) 青槐/白水: 푸른 왜나무/하얀 물. 朱諫은 ‘槐’를 ‘橙’으로 여겨 “青橙과 白水는 안의현 지역 사물의 아름다움을 말한 것이다(青橙、白水, 言安宜土地物產之美也.)”라고 주석을 하였다.

73) 遊子: 나그네. 朱諫은 “遊子是 이백 자신을 일컫는 것이다. 滯는 머무르다 이다. 예를 들어 태사공이 주남에 머물렀다의 滯이다(遊子, 白自謂也. 滯, 留也. 如太史公留滯周南之滯.)”라고 주석을 하였다. ○ 安邑: 안의현. 王琦는 “安邑은 바로 안의현이다(安邑, 卽安宜也.)”라고 주석을 하였다.

74) 懷恩: ‘서현령의 은혜를 그리워하다’의 의미이다. 吳均 <主人池前鶴>의 “恩혜를 그리워하며 차마 떠나지 못하는 것은, 강과 바다와 같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네(懷恩未忍去, 非無江海心.)”에 그 용례가 있다.

75) 繫(예): 다만. 오직. 王琦는 “繫는 惟이다. 또한 발어하는 소리이다(繫, 惟也, 又發語聲.)”라고 주석을 하였다. 《左傳》 隱公元年の “그대는 봉양할 모친이 있거늘, 아 유독 나는 계시지 않구나(爾有母遺, 繫我獨無.)”에 그 용례가 있다. 杜預가 “繫는 말의 보조이다(繫, 語助)”라고 주석을 하였다. ○ 樹桃李: 《說苑》 권 6에 “양호가 위나라에서 죄를 지어, 복으로 간자를 뵈고 말하였다. ‘자금이래로 다시는 사람을 키우지 않겠습니다.’……간자가 말했다. ‘오직 현자만이 누군가를 위해 은혜를 갚을 수 있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무릇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를 심은 자는 여름에 그 아래에서 쉴 수가 있고, 가을에는 그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陽虎得罪於衛, 北見簡子曰: ‘自今以來, 不復樹人矣.’……簡子曰: ‘唯賢者爲能報恩, 不肖者不能. 夫樹桃李者, 夏得休息, 秋得食焉.’)”라는 전고가 있다.

76) 朱諫은 “歲晚은 暮景이다(歲晚, 暮景也.)”라고 주석을 하였다. 暮景의 의미는 저녁 경치, 석양, 만년, 이 세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는 ‘만년’의 뜻을 취하여 번역하였다.

다고 하였다.

<詳釋>

안의현에 있는 백전에서 초땅 출신의 늙은이를 만났는데, 이 늙은이는 안의현의 서현령을 노래로 칭찬하였다. 서현령은 다스리는 재주 뛰어나 땅을 가려서 다스릴 필요가 없었고, 참으로 이 땅에서 칼을 쥐고 있는 마냥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렸다. 서현령의 청렴한 기풍은 안의현 사방 백리에 영향을 미쳤고, 그의 업적과 감화는 임금이 계신 도읍까지 알려졌다.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이곳 교외의 들판에는 농작물이 가득 심어져 있다. 이곳의 보리밭은 흘러가는 강물의 빛을 받아 깔끔하게 보이고, 뽕나무 가지는 햇빛을 받아 밝게 반짝인다. 백성들 간의 소송은 사라지고, 서현령은 그저 한가하게 긴 휘파람만 불며 지내고, 손님들은 찾아 와서 서로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운다. 푸른 해나무가지는 문에서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고, 밖에서 끌어들이는 하얀 물은 집안의 정원 연못으로 흘러들어간다. 나그네인 나 이백은 이곳 안의현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 서현령께서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 때문에 차마 떠나지 못하고 있다. 아! 다만 그대가 도리를 심어 나 같은 후세들을 키워 주신다면 세월이 흐른 뒤에 그대는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解説>

이 시는 干調詩로 서현령의 치적을 예찬하고 자신을 추천해 줄 것을 청하고 있다. 이 시의 창작연대는 미상이다.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제1구에서 제6구까지로 안의현 사람들이 서현령의 청렴함, 업적 및 감화 때문에 그를 가송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도읍지에게까지 알려졌다음을 묘사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제7구에서 제14구까지로, 밖으로부터 유랑인들이 구름처럼 모이고 농작물은 풍성하게 자라 있고, 백성과 관리들은 유유자적하고 빈객 또한 담소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안의현의 풍족하고 여유로운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제15구에서 제18구까지로, 그동안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해 하며 후세인 자신을 추천해줄 것을 구하며, 그렇게만

된다면 만년에 큰 보답이 있음을 축송한다.

3. 결론

이상 살펴본 李白의 〈贈〉詩 5수는 각각 孟浩然, 李皓, 韋處士, 傅靄, 徐安宜에게 보낸 시이다. 제1수는 맹호연의 고상한 인격과 탈속의 풍류를 묘사하고 이에 대한 경의 및 동경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제2수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협적 풍모를 묘사하며 현실에서 겪는 곤궁한 생활로 중형 李皓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다. 젊은 시절의 협적 풍모와 현실의 곤궁을 對比, 交織시키며 현실에서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이백의 종래 초탈, 은거, 신선 등의 이미지를 벗어나 현실의 삶을 걱정하는 자화상을 볼 수 있다. 제3수는 韋處士가 관직생활 및 인위적 삶을 버리고 은거하며 자연적 삶을 사는 모습을 칭송한 것이다. 이로써 자신의 이상을 기탁하였다. 제4수는 淮海에서 눈 내리는 모습을 보고 梁山에 있는 친구 傅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다. 특히 설경의 묘사 속에 촉발된 감정을 결합시켜 '情景交融'의 묘미를 잘 살려낸 작품이다. 제5수는 安宜縣의 徐현령의 기풍, 치적 및 감화를 칭찬하고 자신의 벼슬길을 열어주기를 청한 것이다.

이러한 '贈詩'는 모두 시를 받는 이에 대한 칭송과 더불어 시인의 뜻이나 현실의 삶에 대한 감정을 기탁하고 있다. 시인은 시를 받는 이에 대해 인간적 유대감 내지는 정서적 동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토로하는 감정은 때로는 솔직하고 때로는 현실적이다. 이백 '贈詩'의 이러한 점은 古風, 懷古 등에서 탈속, 신선을 노래하는 것과는 다른 특색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贈詩'는 이백의 또 다른 서정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탐구의 대상이다.

< 參考文獻 >

- 王 琦 輯注,《李太白詩集注》,北京:中華書局,1977.
- 瞿蛻園·朱金城,《李白集校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0.
- 韓 嬰 著,許維通 集釋,《漢詩外傳集釋》 권9,北京:中華書局,1980.
- 宋敏求·曾鞏 等編,《李太白文集》,成都:巴蜀書社,1985.
- 安 旗 主編,《李白全集編年注釋》,成都:巴蜀書社,1990.
- 彭定求 等編,《全唐詩》,北京:中華書局,1992.
- 郁賢皓,《李白大辭典》,桂林:廣西教育出版社,1995.
- 詹 鏞 主編,《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天津:百花文藝出版社,1996.
- 詹福瑞,《李白詩全譯》,石家莊,河北人民出版社,1997.
- 陳貽炊主編,《增訂注釋全唐詩》,北京:文化藝術出版社,2001.
- 蕭士贊,《分類補注李太白詩》,北京:北京圖書館出版社,2003.
- 郁賢皓,《新譯李白詩全集》,臺北:三民書局,2011.
- 丁 放,袁行霈,《盛唐詩壇研究》,北京:北京大學出版社,2012.
- 楊曉玲·夏小鳳,〈從李白的贈詩看其對人物“風流”的品藻〉,《宜春學院學報》,2011년 제 7기.
- 鄭健行,〈從李白〈贈孟浩然〉看李白對孟浩然的認識〉,《吉林師範大學學報》,2012년 제1기.

< 中文提要 >

本論文旨在探討為李白《贈》詩中5首(第一首至第五首)而做的翻譯、校記、詳釋與解說。李白詩歌的原文以“宋蜀本”為藍本,校勘時主要參考詹鏞主編《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第一首是首先描寫孟浩然的高尚人格與脫俗風流,然後表現對孟浩然的敬意與嚮往。第二首是首先描寫李白早年的俠義風度,然後由現在的困窘生活向李皓求助。第三首是歌頌革處士舍棄仕途生活與人偽的生活,選擇隱居,過自然的生活。第四首是眺望淮海下雪的場景,表現懷念親友傳書的感情。第五首是歌頌徐縣令的作風與功績,向他請求幫助李白自己的宦途。

這些“贈”詩都歌頌被“贈”的人士,寄寓李白自己的意思與感情。因為李白對被“贈”的人事感到友誼與認同,他的感情有時坦率的,有時現實的。通過這些,我們可知李白“贈”詩的這種特徵與謳歌脫俗、神仙的詩歌有所不同。

關鍵詞: 李白, 贈詩, 翻譯, 校記, 詳釋, 解說, 宋蜀本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5. 3. 31.	2015. 4. 15.	2015. 4. 24.	2015. 4. 30.	2015. 5. 31.